

SEOUL ECONOMIC MONITORING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 서울 소비경기지수

2022. Aug

08

I · SEOUL · U  
너와 나의 서울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인포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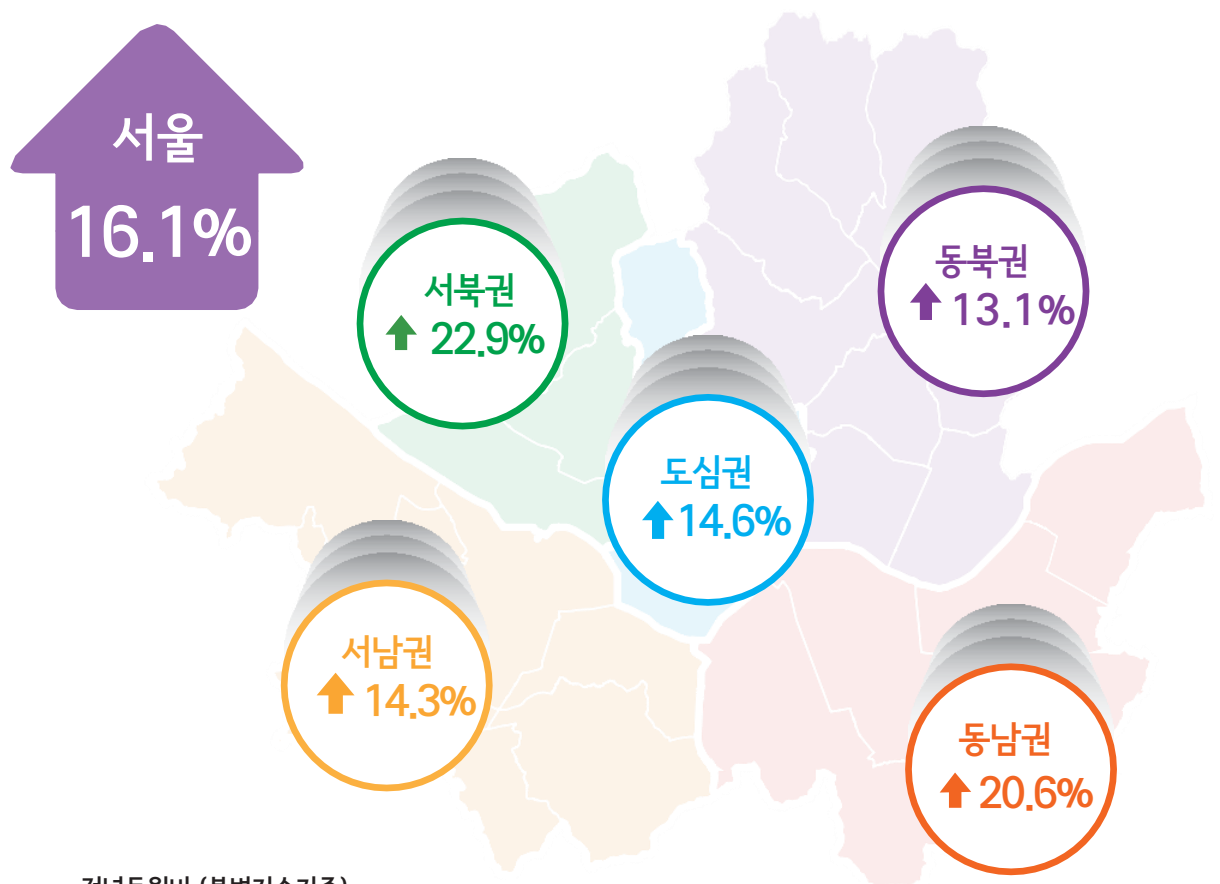
서울 소비경기지수  
2022. 08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22년 08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6.1%** 상승  
(불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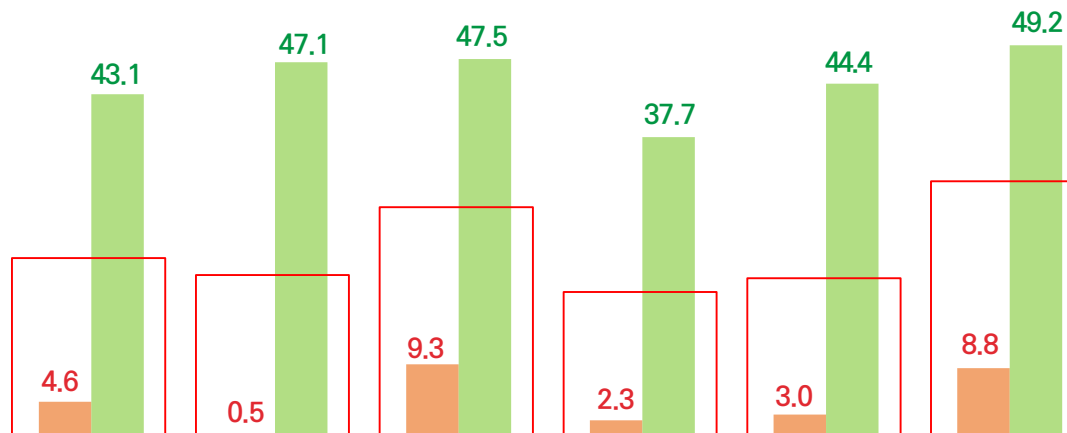


소매업이 증가폭 확대, 숙박·음식점업 높은 오름폭을 유지하면서  
서울소비경기는 전 권역에서 상승세



전년동월비 (불변지수기준)

서울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16.1%	14.6%	20.6%	13.1%	14.3%	22.9%







서울소비경기지수 전년동월비(%)  
소매업지수 전년동월비(%)  
숙박·음식점업지수 전년동월비(%)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카드매출 빅데이터의 가공·조정·변환을 통해 산출된 지수로 신한카드 원본 데이터의 트렌드와는 차이가 있음



## 요약

<p><b>서울</b> 16.1% (119.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년 8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119.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 상승,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12개월 연속 이어짐. 서울은 금리 인상 및 대외경기 불안에 따라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여름 성수기를 맞아 외부활동이 활성화 되면서 7월의 서울의 소비경기지수 오름폭이 (전월보다)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식료품 등이 증가세로 전환하고 기타상품, 무점포소매 등 소매업 세부 업종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소매업 증가폭 확대</li> <li>-서울의 주점·커피전문점, 숙박, 음식점 등 숙박·음식점업 세부 업종 모두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오름폭이 (전월보다) 소폭 감소 하였으나 오름세 지속</li> </ul> </li> </ul>
<p><b>권역종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월 서울의 권역별 소비경기지수는 서울을 비롯한 전권역에서 상승세를 유지하며 오름폭이 (전월보다)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소매업 증가폭이 확대하고, 숙박·음식점업이 높은 오름폭을 보이며 권역별 소비경기지수 오름폭이 (전월보다) 확대</li> <li>-도심권, 동북권 : 소매업이 증가세로 전환하며, 숙박·음식점업 오름폭이 (전월보다) 소폭 감소하며 소비경기지수 상승</li> </ul> </li> </ul>
<p><b>도심권</b> 14.6% (123.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동월대비) 소매업이 0.5% 상승했으나, 숙박·음식점업이 47.1% 상승하면서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14.6% 증가</li> <li>•도심권은 종합소매, 음식료품 등 일부 세부 업종의 증가폭이 확대하며 일부 세부업종의 하락폭이 축소로 도심권 소매업 증가세 전환. 특히 서울 전역에서 상승세를 나타내는 무점포소매업이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9개월 연속으로 하락</li> <li>•도심권은 숙박·음식점업이 상승하며 오름폭은 (전월보다) 소폭 축소.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모든 세부 업종이 상승</li> </ul>
<p><b>동남권</b> 20.6% (123.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9.3% 상승과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의 47.5% 상승으로 동남권 소비경기지수도 20.6% 상승</li> <li>•동남권은 의복·섬유·신발 등 일부 업종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연료, 기타가정용품 등이 하락폭이 축소하며 소매업 오름폭이 (전월보다) 증가.</li> <li>•동남권 숙박·음식점업도 숙박의 상승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주점·커피전문점의 오름폭이 감소하고, 음식점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름폭은 (전월보다) 소폭 감소</li> </ul>
<p><b>동북권</b> 13.1% (11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동월대비) 소매업이 2.3% 상승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숙박·음식점업이 37.7% 상승하면서 동북권 소비경기지수는 13.1% 상승.</li> <li>•동북권은 가전제품·정보통신, 기타가정용품 등 일부 업종이 하락폭이 축소하고 의복·섬유·신발 등 소매업 일부 세부 업종의 증가폭이 확대하면서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증가세 전환</li> <li>•동북권은 숙박은 상승폭이 소폭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이 높은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숙박·음식점업 오름폭은 (전월보다) 소폭 감소</li> </ul>
<p><b>서남권</b> 14.3% (119.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동월대비) 소매업은 3.0% 소폭 증가하였으나 숙박·음식점업이 44.4% 상승하면서 서남권 소비경기지수도 14.3% 상승</li> <li>•서남권 소매업은 문화·오락·여가, 기타가정용품 등의 감소세 유지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매 등 일부 세부 업종의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소폭 증가</li> <li>•서남권은 숙박,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세부 업종이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숙박·음식점업 오름폭 (전월보다) 소폭 감소</li> </ul>
<p><b>서북권</b> 22.9% (11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동월대비) 소매업 8.8% 상승에 숙박·음식점업이 49.2%으로 대폭 상승하면서 서북권 소비경기지수는 22.9% 상승. 서울 권역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줌</li> <li>•서북권은 연료, 기타가정용품 등이 하락폭이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기타상품 등 일부 세부업종이 오름세를 이어가며 소매업 오름폭이 (전월보다) 확대.</li> <li>•서북권 숙박·음식점업도 음식점과 주점·커피전문점 등의 모든 세부 업종의 오름폭이 소폭 감소하며 오름폭은 (전월보다) 감소</li> </ul>



## 서울

### ● 8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6.1% 상승.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

- 전년동월대비 +16.1% = 소매업의 기여도 +3.2%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12.8%p  
(각 업종별 기여도 =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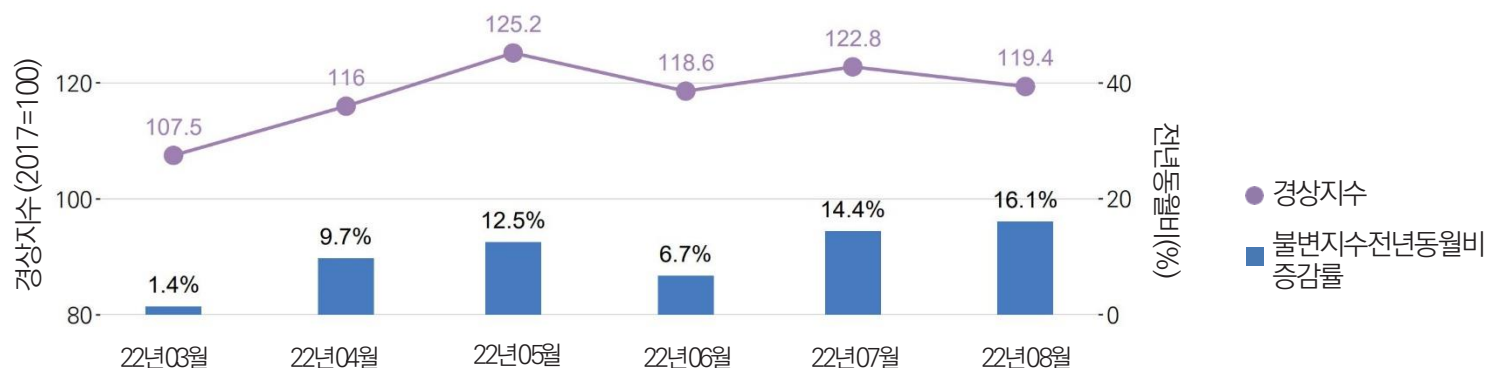
※관련실경은부록의기여도참조

- 8월 서울 소비경기는 계속되는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움직임 등으로 대내외 경기 불안정성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고 외부활동이 활성화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오름폭은 (전월보다) 소폭 확대

###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4.6% 증가,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43.1% 상승

- 8월 서울의 소매업은 일부 업종이 상승폭을 확대하며 증가. 전월 하락했던 음식료품(7월 -4.6%⇒8월 1.0%)이 증가세로 전환하고 의복·섬유·신발(10.2%)이 증가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기타상품(7월 6.3%⇒8월 9.2%), 무점포소매(7월 2.8% ⇒ 8월 8.1%), 종합소매(7월 1.5%⇒8월 5.1%) 등의 상승폭이 확대되며 서울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증가폭 확대
  - 8월 서울은 의복·섬유·신발, 기타상품, 무점포소매, 종합소매, 음식료품, 문화·오락·여가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연료, 가전제품·정보통신, 기타 가정용품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
- 서울의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7월 64.9% ⇒ 8월 58.5%), 음식점(7월 39.9% ⇒ 8월 36.8%)이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숙박(7월 50.6 %⇒ 8월 54.8%)의 상승폭이 확대에도 오름폭이 (전월보다) 소폭 감소. 12개월 연속 숙박·음식점업 경기지수 상승세 유지
  - 8월 서울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 숙박, 음식점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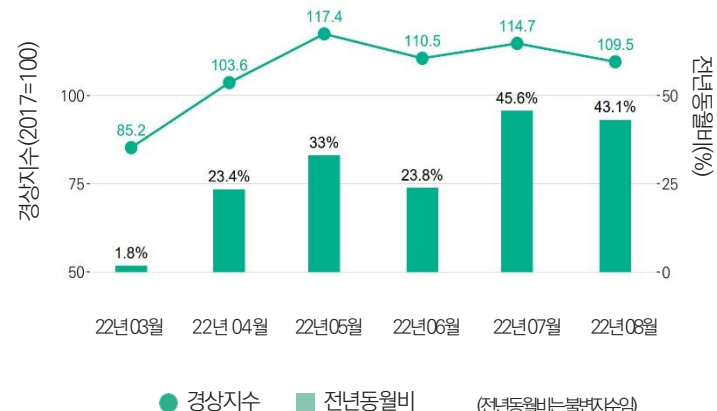
### | 서울 소비경기지수



### | 서울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 | 서울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 도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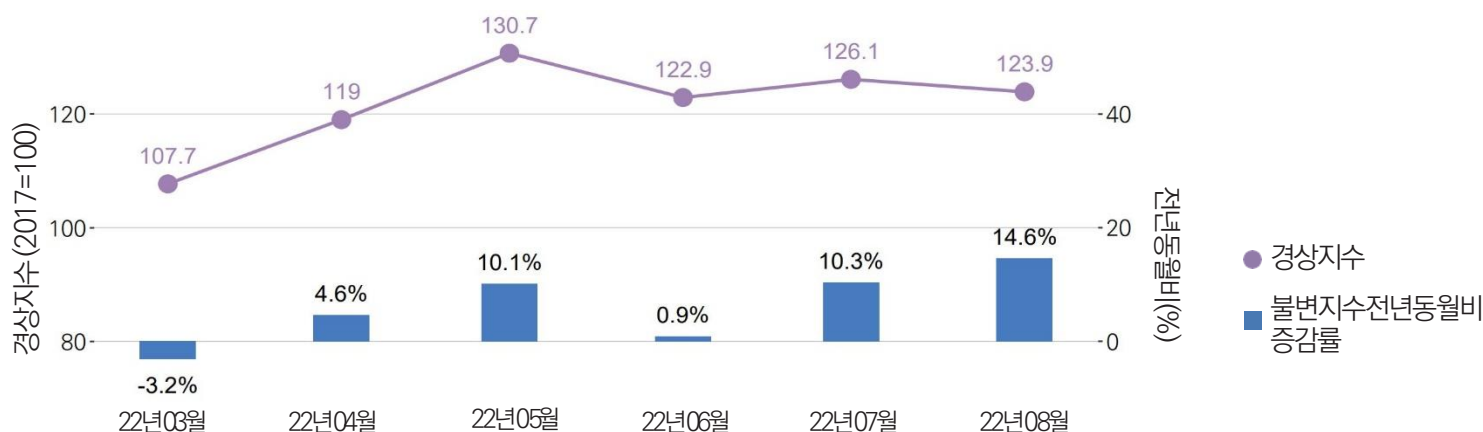
### •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4.6% 상승.

- 전년동월대비 +14.6% = 소매업의 기여도 +0.4%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14.3%p  
(각 업종별 기여도 =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 관련 설명은 부록의 7.1 여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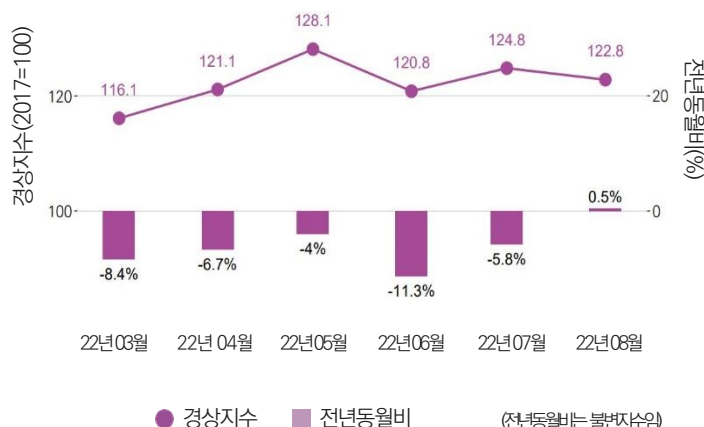
###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0.5%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47.1% 상승.

- 도심권 소매업은 전월 하락했던 의복·섬유·신발(7월 -30.1% ⇨ 8월 -29.1%), 가전제품·정보통신(7월 -28.3% ⇨ 8월 -5.3%), 연료(7월 -10.8% ⇨ 8월 -5.5%), 무점포소매(7월 -9.8% ⇨ 8월 -0.6%) 등의 업종이 감소폭이 축소되고 음식료품(14.8%), 종합소매(6.5%), 기타상품(5.7%) 등이 증가폭을 확대하며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증가세 전환. 특히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서울 전역에서 상승세를 나타내는 무점포소매(-0.6%)가 9개월 연속으로 하락
- 8월 도심권 소매업은 음식료품, 기타가정용품, 종합소매, 문화·오락·여가, 기타상품 등의 순으로 소비 증가
- 반면 의복·섬유·신발, 연료, 가전제품·정보통신, 무점포소매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
- 도심권 숙박·음식점업은 숙박이 상승폭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오름폭은 (전월보다) 소폭 축소. 숙박(68.3%), 음식점(47.2%), 주점·커피전문점(18.4%) 등의 모든 업종이 상승
- 8월 도심권 숙박·음식점업은 숙박, 음식점, 주점·커피전문점 순으로 소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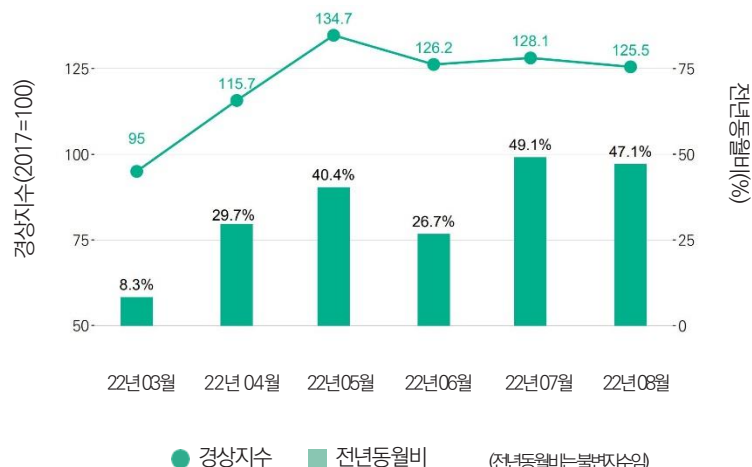
### 도심권 소비경기지수



### 도심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 도심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 동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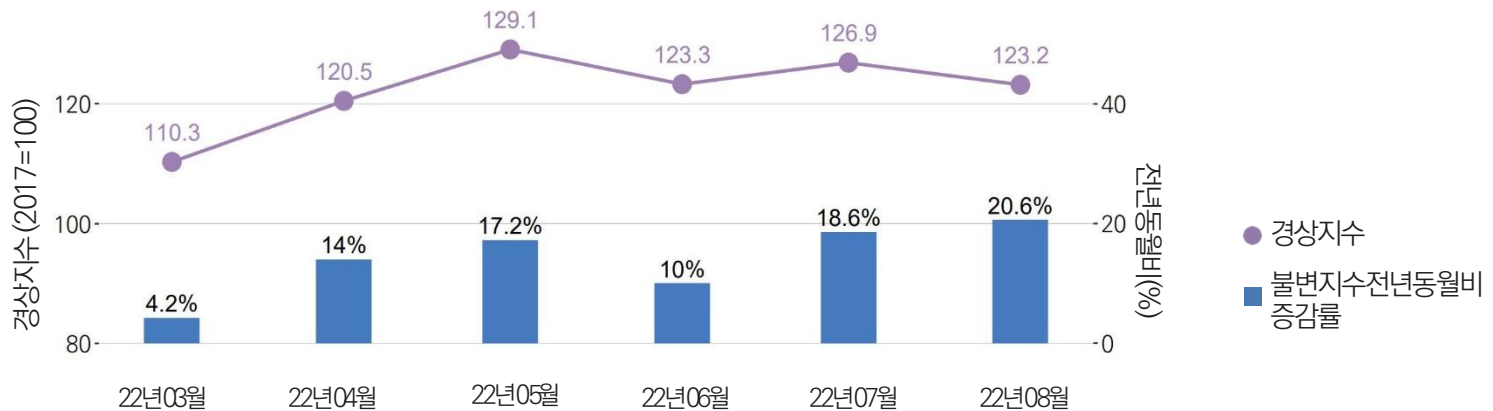
### • 동남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0.6% 상승

- 전년동월대비 +20.6% = 소매업의 기여도 +6.6%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14.0%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관련설명은부록9기 여도참조

###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9.3%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47.5% 상승

- 동남권은 기타가정용품(7월 -36.8% ⇨ 8월 -21.1%), 연료 (7월 -25.1% ⇨ 8월 -15.6%), 가전제품·정보통신(7월 -21.6% ⇨ 8월 -6.9%), 음식료품(7월 -6.4% ⇨ 8월 -1.8%) 등의 하락폭이 축소됨과 함께 의복·섬유·신발(18.5%), 종합소매(11.1%), 기타상품(10.5%), 문화·오락·여가(2.2%) 등이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소매업 오름폭이 (전월보다) 증가.
- 8월 동남권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 무점포소매, 종합소매, 기타상품, 문화·오락·여가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기타가정용품, 연료, 가전제품·정보통신, 음식료품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
- 동남권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숙박(49.7%)의 상승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점·커피전문점(7월 141.1% ⇨ 8월 131.2%), 음식점(37.4%) 등의 업종의 오름폭이 소폭 감소하며 오름폭이 (전월보다) 소폭 감소
- 8월 동남권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 숙박, 음식점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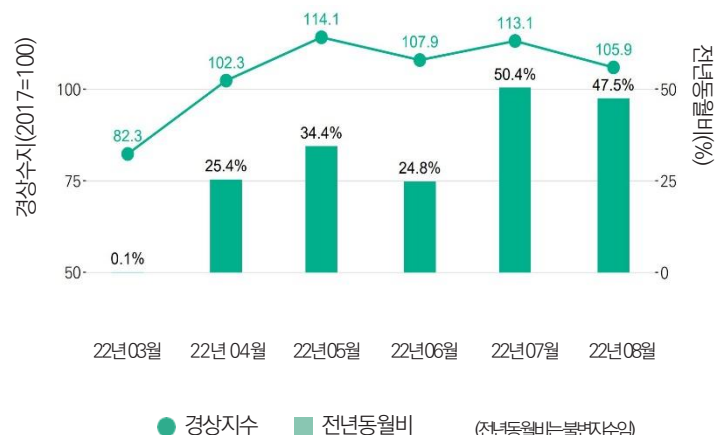
### 동남권 소비경기지수



### 동남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 동남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 동북권

### • 동북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3.1% 증가

- 전년동월대비 +13.1% = 소매업의 기여도 +1.6%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11.5%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관련설명은부록의기여도참조

###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2.3%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37.7% 상승

- 동북권은 의복·섬유·신발(7월 18.7% ⇨ 8월 25.9%), 문화·오락·여가(7월 0.1% ⇨ 8월 8.8%), 기타상품(7월 3.2% ⇨ 8월 8.1%), 무점포소매(7월 4.6% ⇨ 8월 7.8%) 등의 증가폭이 확대하고 가전제품·정보통신(7월 -24.5% ⇨ 8월 -8.5%), 기타가정용품(7월 -12.1% ⇨ 8월 -8.4%), 종합소매(7월 -4.6% ⇨ 8월 -1.0%) 등 세부 업종의 하락폭이 축소하며, 연료(7월 -19.6% ⇨ 8월 -26.7%)의 감소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증가세 전환.

· 8월 동북권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 문화·오락·여가, 기타상품, 무점포소매, 음식료품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가전제품·정보통신, 연료, 기타가정용품, 종합소매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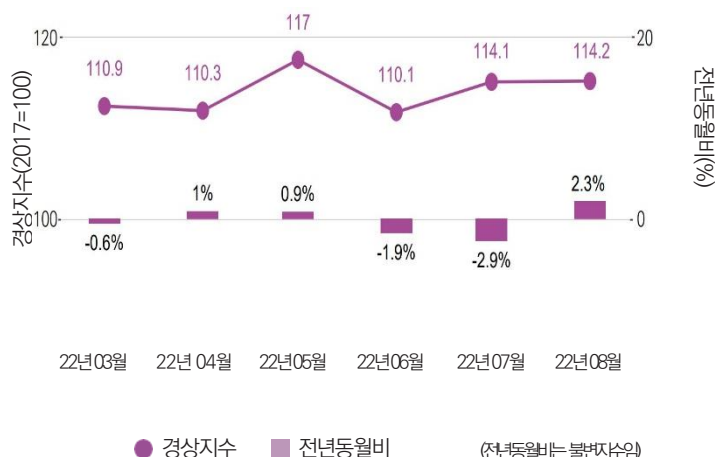
- 동북권도 음식점 (7월 31.9% ⇨ 8월 29.9%)의 상승폭이 소폭 감소하면서 주점·커피전문점(72.6%), 숙박(22.5%)이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였음에도 숙박·음식점업 오름폭은 (전월보다) 소폭 감소

· 8월 동남권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 숙박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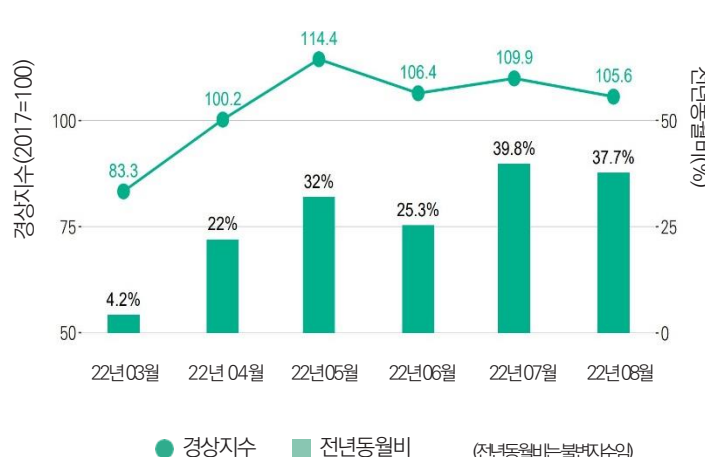
### 동북권 소비경기지수



### 동북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 동북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 서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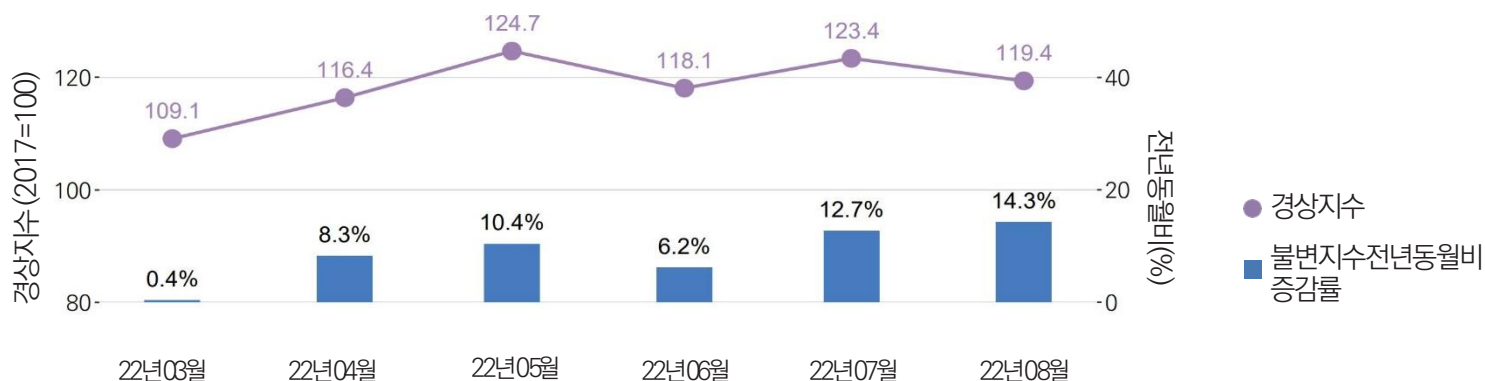
### ● 서남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4.3% 상승

- 전년동월대비 +14.3% = 소매업의 기여도 +2.2%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12.0%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관련설명은부록의7 여도참조

###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3.0%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44.4% 상승

- 서남권 소매업은 문화·오락·여가 (7월 -17.0% ⇨ 8월 -14.9%), 기타가정용품(7월 -15.7% ⇨ 8월 -12.4%), 연료(7월 -24.7% ⇨ 8월 -23.4%), 가전제품·정보통신(-10.8%) 등이 감소세를 유지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매(7월 -2.2% ⇨ 8월 2.3%), 음식료품(7월 -4.6% ⇨ 8월 1.0%) 등의 증가세 전환과 기타상품(8.2%) 및 무점포소매(9.0%)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소폭 증가
- 8월 서남권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 무점포소매, 기타상품, 종합소매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연료, 문화·오락·여가, 기타가정용품, 가전제품·정보통신, 음식료품, 종합소매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
- 서남권은 전년동월 부진을 지속하였던 주점·커피전문점(91.6%), 숙박(54.0%), 음식점(33.8%) 등 세부 업종이 높은 증가폭을 유지해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증가하였으나 (전월보다) 오름폭은 소폭 감소
- 8월 서남권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 숙박, 음식점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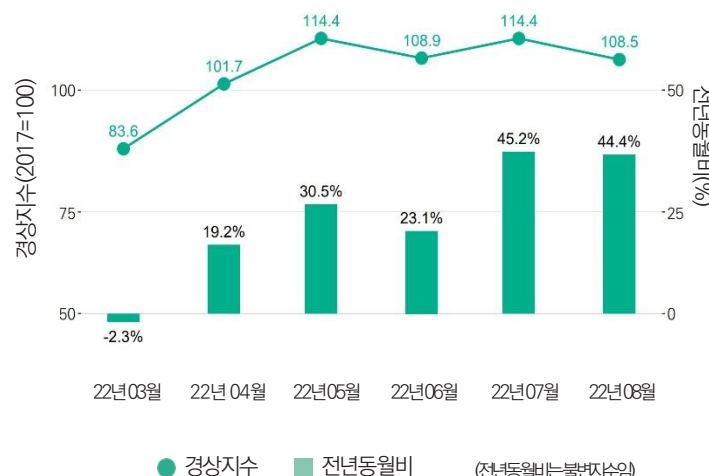
### | 서남권 소비경기지수



### | 서남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 | 서남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 서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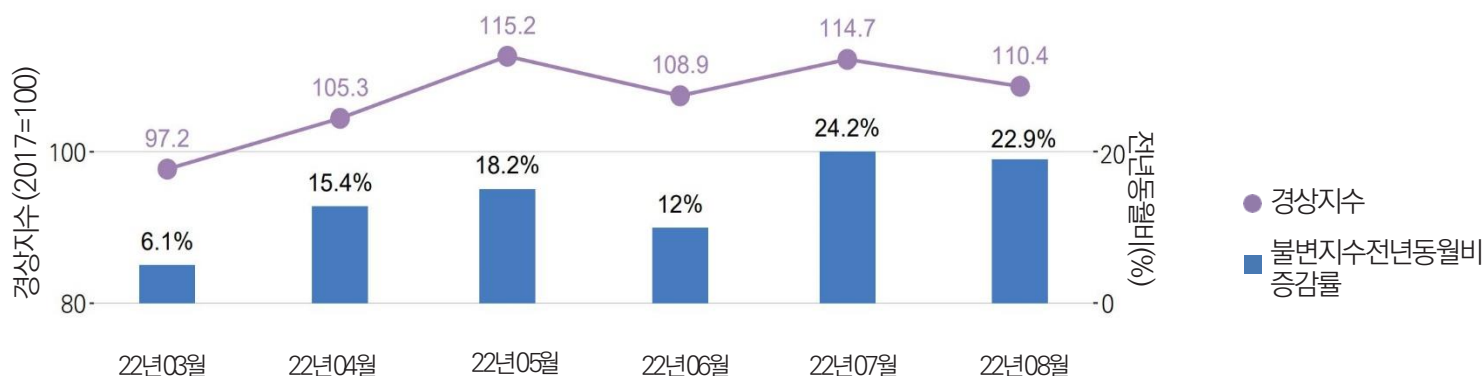
### ● 서북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2.9% 상승. 전 권역 중 가장 양호.

- 전년동월대비 +22.9% = 소매업의 기여도 +5.7%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17.2%p  
(각 업종별 기여도 =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관련설명은부록의 '기여도' 참조

###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8.8%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49.2% 상승

- 서북권 소매업은 연료(-25.9%), 기타 가정용품(7월 -1.6% ⇨ 8월 -3.7%) 등 하락폭이 확대하였음에도 음식료품 (0.7%), 종합소매(1.5%) 등 일부 세부 업종이 증가세로 전환하고 의복·섬유·신발(36.8%), 기타 상품(14.0%), 무점포소매(10.5%), 가전제품·정보통신(8.6%) 등의 업종이 오름세를 이어가며 소매업 오름폭은 (전월보다) 증가.
- 8월 서북권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 기타상품, 무점포소매, 문화·오락·여가, 가전제품·정보통신, 음식료품, 종합소매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연료, 기타가정용품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
- 서북권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83.8%)과 숙박(33.3%), 음식점(38.8%) 등의 모든 세부 업종의 증가폭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전월보다) 오름폭도 소폭 감소
- 8월 서북권 숙박·음식점업도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 숙박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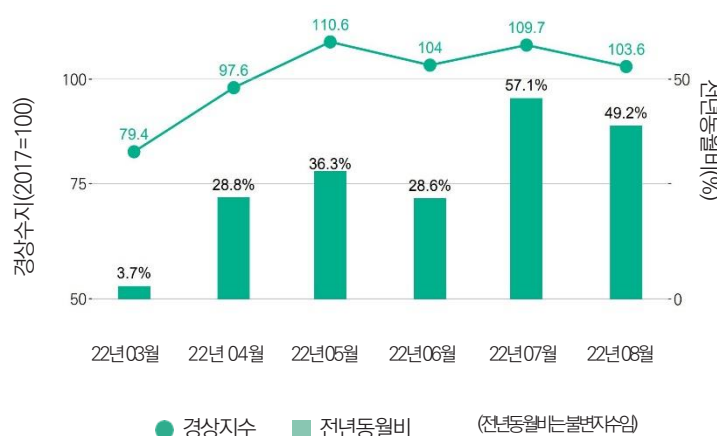
### 서북권 소비경기지수



### 서북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 서북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통계표

년도	월	서울소비경기지수											
		서울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2022년	03월	107.5	98.6	107.7	100.2	110.3	101.0	99.9	91.0	109.1	99.6	97.2	89.3
	04월	116.0	104.8	119.0	108.8	120.5	108.7	106.3	95.2	116.4	104.7	105.3	95.3
	05월	125.2	112.3	130.7	118.7	129.1	115.6	116.0	103.1	124.7	111.3	115.2	103.5
	06월	118.6	105.8	122.9	111.0	123.3	109.9	108.6	96.0	118.1	104.8	108.9	97.2
	07월(p)	122.8	107.7	126.1	111.3	126.9	111.0	112.4	98.1	123.4	108.0	114.7	101.1
	08월(p)	119.4	104.3	123.9	108.9	123.2	107.4	110.8	96.4	119.4	104.1	110.4	97.0

p : 잠정치

기여도

[ 단위 : %p ]

구분	서울소비 경기지수 (22.08월)	소매업 (22.08월)											숙박 및 음식점업 (22.08월)			
			종합소매	음식료품	가전제품 · 정보통신	의류· 섬유·신발	기타 가정용품	문화· 오락·여가	연료	기타상품	무점포 소매	숙박		음식점	주점· 커피전문	
서울	16.1	3.2	1.0	0.0	▽0.6	0.6	▽0.2	0.0	▽0.2	0.9	1.7	12.8	2.4	7.5	2.9	
도심권	14.6	0.4	1.4	0.2	▽0.3	▽1.6	0.2	0.1	0.0	0.5	▽0.1	14.3	5.3	8.0	1.1	
동남권	20.6	6.6	1.9	0.0	▽0.2	1.6	▽0.6	0.0	▽0.1	1.0	3.1	14.0	2.7	8.1	3.3	
동북권	13.1	1.6	▽0.2	0.0	▽0.6	0.8	▽0.1	0.1	▽0.4	0.9	1.1	11.5	0.5	6.6	4.3	
서남권	14.3	2.2	0.4	0.0	▽0.9	0.4	▽0.2	▽0.2	▽0.3	0.7	2.3	12.0	1.3	6.9	3.8	
서북권	22.9	5.7	0.2	0.0	0.4	1.4	▽0.1	0.0	▽0.2	2.2	1.8	17.2	0.8	9.4	7.0	

주 기여도는 하위구성요소의 변동이 종합지수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지역별 하위구성요소의 기여도 합은 지역별 종합지수의 전년동월 증감율과 동일합니다. 주의, 기여도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므로 하위구성요소의 합이 종합지수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종분류 및 지수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카드매출 빅데이터	
분류코드	분류명		가맹점 업종분류	
서울소비경기지수	G. 소매업	471	종합소매업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면세점, 종합소매점 등
		472	음 · 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정육점, 청과물, 농수산물, 농가공산품 등
		473	가전제품 및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	가전용품, 정보통신기기, 컴퓨터 등
		474	의복 및 섬유, 신발 소매업	남·여·기성복, 신발, 가방, 직물 등
		47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가구, 인테리어, 악기 등
		476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운동 및 레저용품, 서적 및 문구, 완구 등
		477	연료 소매업	주유소, LPG가스, 가정용연료 등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약국, 화장품, 안경, 약세사리 등
		479	무점포 소매업	CATV상품판매, 전자상거래, 결제대행, 자동판매기,방문판매 등
	I. 숙박 및 음식점업	551	숙박시설운영업	호텔, 콘도, 모텔, 여관 등
		561	음식점업	일반대중음식, 제과점, 패스트푸드 등
		562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커피전문점, 주점 등

주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카드 가맹점 업종사례



##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 개요

### • 서울소비경기지수

시민생활에 밀접한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소비중심업종에 대하여 전체 또는 개별생산활동의 종합적인 파악을 위하여 업종별 부가가치를 가중치로 적용한 지수

### • 데이터 : 신한카드 카드매출 빅데이터

### • 공간적 범위 : 서울 및 5대 권역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종로, 중구, 용산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마포

### • 지수의 산식 : 라스파이레스(기준시점고정가중평균)산식

### • 서울 및 각 권역의 가중치

산업 간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며, 해당 지역 산업별 기초가격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 각 권역의 지수는 해당 지역의 산업 가중치 합이 1로 산정된 독립적인 지수로 각 권역 증감률의 합이 서울전체의 증감률과 일치하지 않음  $\sum_i w_i = 1$ ,  $w_i$ 는 산업별 가중치를 의미 (기초가격 부가가치는 2015년 경제총조사 기준 인건비 + 영업이익 + 감가·대손상각비 + 세금과공과임)

### • 지수종류 : 경상지수및불변지수

- 경상지수 : 월별 매출액을 기준년도 매출액(2017년 평균)으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불변지수 : 경상지수 ÷ 디플레이터 × 100 (디플레이터는 업종별 생산자물가지수 활용)

### • 기여도

종합지수증감률 =  $\sum_i$  기여도 $_i$ , 기여도 $_i = (\Delta \text{하위지수}_i / \Delta \text{종합지수}) \times \text{종합지수증감률}$ ,  $i$ 는 각 산업을 의미  
하위지수(산업 각 부문)가 종합지수의 증감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줌

## 유의사항

-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이하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소비중심 업종(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등)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월간 소비지수이다.
- 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소비는 서울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약 30%로 소비경기의 핵심 요소이다.
- 서울소비경기지수의 장점은 매월 1억건의 신한카드 매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서울 세부지역의 소비경기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통계청의 ‘서울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벤치마킹하여 생산 측면의 매출액을 중심으로 지수가 구성 되었으나, 분석대상인 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이 소비밀착업종을 고려하여 지수의 명칭을 소비경기지수로 명명한다.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서울연구원의 연구자료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 통계청의 ‘서울 서비스업 생산지수’와는 지수의 공간 및 시간적 범위와 데이터 출처에 따른 표본이 서로 달라 두 지수의 방향 또는 증감율이 상이할 수 있다.
- 신한카드 매출 빅데이터는 개인 및 법인이 이용한 신용·체크카드 소비를 서울지역에 소재한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집계한 것으로, 서울시민의 카드소비 뿐 아니라 서울외 지역 국민들이 서울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카드소비를 포함한다. 단, 무점포소매업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민의 소비(지출)로만 집계 하였다.
- 신한카드 매출 빅데이터는 서울 소매업 및 숙박·음식업 전체 매출의 약 16%로 추정된다. 카드사의 점유율 및 카드사 용비율 변화에 따라 실제 매출액 대비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될 소지가 있으며, 카드 가맹점의 업종 변화 및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경상 및 불변지수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물가변동분을 제거한 불변지수의 전년동월비를 중심으로 작성 및 분석되며, 설명절, 연휴 등의 월간 이동과 영업일수 변동, 그 외 불규칙 요인에 의한 효과가 분석결과에 포함되므로 해석 및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카드매출 빅데이터의 가공·조정·변환을 통해 산출된 지수로 신한카드 원본 데이터의 트렌드와는 차이가 있다.